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달러 급등에 깨어난 외환시장..변동성 더 확대될 듯
 - ◇ (초점)-국민연금 인력난 다시 수면 위로.. '전주 리스크' 피해 차라리 해외로?
 - ◇ (칼럼)-한은의 '2월 금리인상 불가론'과 통화정책의 점진주의
 - ◇ (초점)-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강조한 정부.. "내년 발표 일정 맞춰 준비중"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신종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강력한 위력을 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로이터/수마야 히삼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26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93.3	-0.7%	-9.0%	+6.5%	유로	1.1317	0.3%	-7.4%	+8.9%
100엔 대비	1,054.1	-1.2%	-0.3%	+1.1%	엔	113.31	0.6%	-8.9%	+5.2%
유로 대비	1,351.7	-0.9%	-1.9%	-2.3%	위안	6.3863	0.0%	2.2%	+6.7%
위안 대비	186.82	-0.5%	-11.0%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899.34	-2.0%	14.0%	+7.2%
코스피	2,936.44	-1.2%	2.2%	+30.8%	나스닥	15,491.66	-3.5%	20.2%	+43.6%
코스닥	1,005.89	-3.5%	3.9%	+44.6%	S&P500	4,594.62	-2.2%	22.3%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27.77	-3.2%	-5.2%	+19.8%
국고채 3Y	1.863%	-10.3bp	88.7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2.050%	-13.8bp	71.5bp	-14.5bp	미국채 2Y	0.508%	-0.5bp	38.7bp	-144.0bp
국고채 10Y	2.255%	-11.7bp	54.2bp	+3.0bp	미국채 10Y	1.482%	-6.6bp	57.0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8.15	-10.3%	40.5%	-20.5%	한국 5Y	20.1bp	1.3bp	-1.9bp	+0.1bp
금(현물)	1,791.81	-2.9%	-5.6%	+25.0%	일본 5Y	17.6bp	0.0bp	2.6bp	-4.5bp
TR상품지수	3,390.76	2.2%	26.5%	+7.8%	중국 5Y	52.7bp	3.8bp	24.6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월 29일(월)>

- 기재부, 국제신용평가사 S&P 한국 연례협의 실시(09:00)
- 한은, 3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12:00)
- 청와대,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14:00)

<30일(화)>

- 금감원,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
-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08:00)
- 기재부, 부총리 S&P 연례협의단 면담(09:00)
- 한은, 3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12:00)
-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12:00)
- 금융위원장, 연구기관 간담회(14:00)

<12월 1일(수)>

- 산업부, 11월 수출입 동향(09:00)
- 금감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11:00)
- 금감원, 3분기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현황(잠정)(12:00)
- 한은, 3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경제 전망 발표(19:00)

<2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11:00)
- 한은, 3분기 국민소득(잠정)(08:00)
-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3일(금)>

- 한은, 11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10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국민연금, 제 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보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현황,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14: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월 29일(월)>

- 일본 10월 소매판매 (08:50)
- 유로존 11월 기업환경지수·경기체감지수·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19:00)
- 미국 10월 잠정주택판매 (자정)

<30일(화)>

- 미국 11월 달러스런은 제조업 경기지수(00:30)
- 일본 10월 실업률 (08:30)
- 일본 10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중국 11월 NBS 제조업·서비스업 PMI (10:00)
- 일본 10월 건축주문·주택착공 (14:00)
- 유로존 11월 CPI (19:00)
- 미국 9월 주택가격 (23:00)
- 미국 11월 시카고 PMI (23:45)
- 미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자정)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재닛 옐런 재무장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서 증언 (자정)

<12월 1일(수)>

- 일본 3분기 기업설비투자 (08:50)
- 일본 11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10:45)
- 유로존 11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1월 ADP 전국고용동향 (22:15)
- 미국 11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23:45)
- 미국 10월 건설지출 (자정)
- 미국 11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자정)

<2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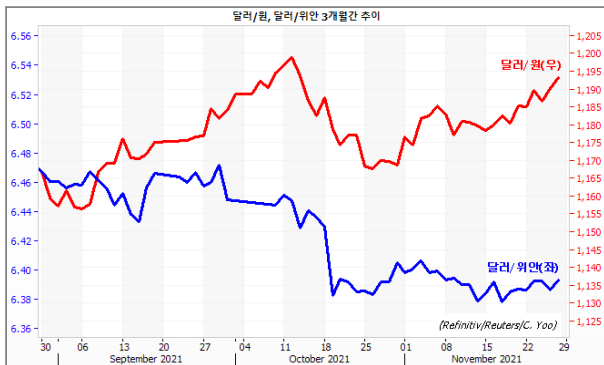
- 연준 베이지북 발행 (04:00)
- 유로존 10월 생산자물가·실업률 (19:00)
- 미국 11월 챌린저 해고건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3일(금)>

-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11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18:00)
- 유로존 10월 소매판매 (19:00)
- 미국 1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실업률(22:30)
- 미국 11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치 (23:45)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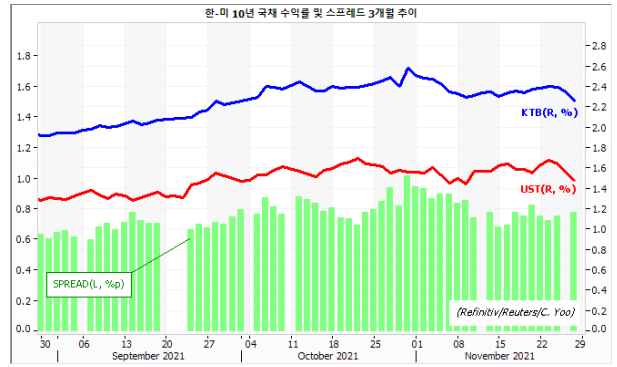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 19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등장 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 회피 강도 따라 상승 압력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85-1205 원이다.
- 오미크론 출현으로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할 경우 연말 시장이 얇은 틈을 타 달러/원 환율은 상승 변동성을 키울 여지가 있다.
- 물론, 연말을 맞아 역외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플레이로 달러/원 방향성 거래가 제한되고 외환당국의 변동성 관리로 달러/원 상단이 쉽게 뚫리지 않을 수는 있다. 연내 환전을 마무리해야 하는 수출업체들의 대기 매물도 감안해야 한다.
- 그렇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까지 달러/원 상승 시도는 틈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외인 자금 이탈이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 이런 가운데 주 중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의회 증언은 더욱 주목된다. 아울러 주말에 나올 미국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동향은 12월 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챙겨봐야 할 주요 지표다.
- 이외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10월 산업생산, 11월 수출입 잠정치 및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새 코로나 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채권가격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11월 금통위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이제는 수급 장이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12월 국채 발행물량을 상당폭 줄인 상황에서 12월 초에는 대규모 국고채 만기도 돌아온다. 은행채 발행을 대부분 마무리한 은행들이 이제는 채권을 매집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여기에 오미크론 변수가 가세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지, 중증 발병이 더 많은지 등에 대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자료가 쌓일 때까지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채권 매수 요인이다.
- 당장 대규모 숏 포지션을 구축해 왔던 외국인의 행보가 관건이다. 외국인의 숏 포지션이 털릴 경우 강세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주엔 10월 광공업생산, 11월 소비자물가와 수출입 등 다양한 지표가 발표된다. 하지만, 시장이 오미크론 파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나간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석)-달러 급등에 깨어난 외환시장..변동성 더 확대될 듯

뉴욕, 11월 25일 (로이터) -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관련 전망이 엇갈리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글로벌 통화 움직임이 커지는 등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달러, 유로, 엔 등 통화 변동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도이치은행의 통화 변동성 지수는 최근 몇 주 동안 3개월 만의 최저치에서 3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금방 진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아 지난 몇 주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환율 헤징 활동이 수개월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등 많은 이들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모간스탠리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럿 최고투자책임자는 "정책, 인플레이션을, 경제 성장을 측면에서 (여러 나라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이같은 격차가 2022년 가장 중요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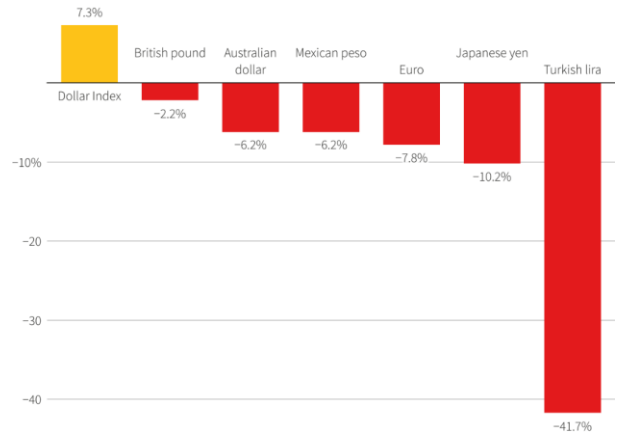
며, 투자자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은 대체로 연준이 채권매입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결국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하리라는 베팅으로 달러 랠리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났다.

올해 현재까지 달러는 유로 대비 9.1% 절상됐는데, 현 추세가 유지되면 6년 만의 최고 연간 절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는 또한 엔 대비로는 11.6%, 호주달러 대비로는 7.0% 절상됐다.

King dollar

The dollar has advanced against a broad range of currencies this year



Note: YTD performance
Source: Refinitiv Eikon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글로벌인베스트먼트의 리차드 벤슨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달러가 유로 대비 계속 절상될 것이며,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함에 따라 연준은 내년 유럽중앙은행(ECB)보다 먼저 통화정책을 긴축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그는 "연준은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를 인상하지만 ECB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견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통화정책 전망이 반영된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24일 연준이 내년 6월까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100%로 반영했다. 반면 유로존 금리 선물은 내년 12월까지 금리가 10bp 오를 가능성을 온전히 반영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우려 역시 외환시장 움직임을 이끌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유로 및 다른 유럽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스위스프랑은 지지받았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우려에 최근 루블 가치는 하락했고, 리라의 경우 터키 대통령이 공격적인 완화 사이클로 전환하도록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하면서 이달 들어 가치가 25% 급락했다.

이렇게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추가 환율 변동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로/달러 3개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은 24일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해, 유로/달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헤지 수요가 크게 늘었음을 시사했다. 달러/엔 변동성에 대비한 일부 옵션 수요도 1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QCAM 통화애셋매니지먼트의 버나드 에시와일러 경제 자문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리라 전망하면서도 외환시장 내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이용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악화, 코로나 19 확산, 에너지 부족 심화는 시장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며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CIBC 캐피탈마켓츠의 바이판 라이 북미 FX 전략 헤드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가까워질 때 외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연준의 다음 행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통화에 노출된 자산관리자라면 어느 정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점)-국민연금 인력난 다시 수면 위로.. '전주 리스크' 피해 차라리 해외로?

서울, 11월 22일 (로이터) 김주연 · 이지훈 · 박예나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지 거의 5년이 지났는데도 유능한 운용인력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기금 운용 역량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운용 기금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해외투자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이럴 바에는 운용 부문을 차라리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 전주 리스크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전주로 이전할 당시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관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최근 핵심 인력이탈이 또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금운용본부에 확인한 결과 전주 이전이 결정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입사자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퇴사자는 약 140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근무 인원인 320명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바뀐 것이다. 최근에는 부동산투자실장과 인프라투자실장이 비슷한 시기 퇴사한 것이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전주 이전 시점에 비해 많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 인력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것은 최근 대규모 인력 증원으로 인한 상대적인 결원 비율 확대가 주는 착시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즉, 최근 정원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결원 비율 등을 계산해 전체적인 인력 상황과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외투자 확대에 따라 해외 근무 기회도 확대되고 있고, 유능한 인재에 대한 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한편으로는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이터가 퇴사자 등을 상대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연봉, 생활 여건 등 국민연금의 각종 처우 개선 노력에도 근무지 위치와 그에 따른 여러 제약요건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로이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직 인건비(기본급 및 성과급)로 총 386 억원을 지급했다. 작년 운용직 정원을 고려할 때 대략 1.3 억원의 평균 연봉이 추정된다.

올해 운용직을 그만둔 한 퇴사자는 로이터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인 게 굉장히 컸다"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주말 부부를 하고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게 있었다"고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에서는 사실 다 딱딱딱 붙어 있어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시장과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게 아쉬웠다"고 전했다.

▲ 일본은 25%

기금 적립금이 올해 상반기 900 조원을 돌파해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은 운용직 인원을 대폭 늘리는 추세지만, 이같은 기피 현상은 기금운용 역량 저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출범 이후 2003년 처음으로 100 조원을 돌파했으며 4년 뒤 두 배로 늘었고, 이후 6년 뒤 다시 두 배인 400 조원을 돌파했다. 여전히 지급액보다 적립금이 큰 상황이었기에 기금 규모는 그로부터 7년 만인 지난해 800 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직 정원은 올해 40명 증가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2년 연속 대폭 증원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4월에는 54명 선발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공고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기금운용직은 여전히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주임운용역 채용에서 최소 1년의 투자 실무 경력을 지원조건에서 제외하는 등 채용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이는 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왔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감이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 퍼포먼스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선호하면 지방을 선호하지 않게 되고, 좋은 인력들은 이로 인해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10%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숫자만 보면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일부 국내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일본의 작년 수익률은 25%였다.

▲ 해외투자 확대 걸림돌

이같은 인력난은 향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발표한 '해외투자 종합계획(2020-2024)'에서 해외자산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주식 직접운용 도입, 해외채권 직접운용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기금 규모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오는 2041년 1800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와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하면 우수한 연금 기금운용 인력 확보는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작년 기준 국민연금의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 사무소 인력은 평균 10명으로, 캐나다(CPPIB) 및 노르웨이(NBIM)의 각각 50명, 6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게 뒷받침할 투자 역량"이라면서 "국내에서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관련 인력 풀이 넓진 않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기금운용본부를 아예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5년 퇴사한 홍춘욱 전 투자운용팀장은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력 한 두 줄 넣고 빨리 좋은 커리어를 얻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무척 애썼는데, 이제는 아예 커리어가 없는 사람들까지 뽑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은 있다"면서 "해외투자를 계속 늘려가기로 했으니 운용 성과를 위해서는 국내 자산을 운용하는 일부 부서는 남겨두더라도 빨리 뉴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칼럼)-한은의 '2월 금리인상 불가론'과 통화정책의 점진주의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1월 2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는 어느 측면에서 봐도 충격적이었다.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 금통위가 다음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시장을 압박한 건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일단 11월 기준금리 인상 의지까지 밝힌 후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 과정에서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 조정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8월의 표현을 '적절히'라는 문구로 수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구 수정의 목적을 친절하게 밝히며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때문에 문구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11월에 이어 1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것이다.

▲왜 점진적 금리 인상이 중요한가?

국내 통화정책 역사상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인상된 것은 지난 2007년 7월~8월 한 차례에 불과하다.

그만큼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다.

통화정책의 점진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금과옥조가 됐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덕에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파티가 벌어지긴 했지만, 중앙은행들이 돈을 회수하려고만 하면 시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단기금리의 점진적 조정은 채권시장 참가자들뿐 아니라 일반 경제주체들의 금융 긴장을 최소화해 시장 발작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었다.

국내 통화당국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점진주의를 배격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을 때 시장참가자들이 느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한은이 5월 통화정책 정상화의 의지를 천명한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온 질서 있는 정상화,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는 금리 인상 시그널과도 거리가 있다.

선택의 결과는 분명했다. 시장은 폭주했다. 금통위가 점진주의를 공식적으로 배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경로의 가능자를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급격히 붕괴하다 보니 모두가 포지션 방어에 급급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장에서 '금리 상단 인식'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됐다.

이 과정에서 통화당국이 잃은 것도 있다. 그동안 금통위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대의 아래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통화정책 정상화의 수순을 밟아 왔다. 하지만, 이 총재가 스스로 촉발한 시장과의 긴장관계가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속도조절론'의 역풍을 불러온 것이다.

▲한은 내부의 '2월 금리 인상 불가론'

이주열 총재는 왜 점진적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갑작스럽게 되돌린 것일까?

결국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담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총재가 임기 종료 전 기준금리를 코로나 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려놓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된 후 남은 기회는 1월과 2월뿐이다.

문제는 내년 20대 대통령선거일이 3월 9일로 2월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2월 24일과 불과 보름 차이라는 점이다. 대선 보름 전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 한은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한은 내부에서 2월 금리 인상 불가론이 강하게 제기되자 이 총재가 10월에 불가피하게 1월 인상 여부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기 만료 전에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리려는 이 총재의 의지와 한은 내부의 2월 인상 불가론이 10월의 연속 금리 인상 시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득보다 실이 많을 것

물론 지난 한 달의 풍파를 겪은 시장에선 "이제 1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2월에 인상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총재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매파적 의사소통 행태를 유지하는 한 시기가 1월이든 2월이든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 측면에서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과의 긴장 완화, 통화정책 경로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1월보다 2월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통위의 정책 결정이 대선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그저 입발린 표현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순리대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이달 금통위 회의에서 연속 인상 시그널을 주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를 가리지 않고 누가 봐도 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총재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통화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주의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은 일부에선 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가 2월에 못 올릴 상황이 오면 어쩌냐는 우려도 있긴 하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판단할 일이다.

어느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겠다고 결정한 후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 통화당국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초점)-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강조한 정부.."내년 발표 일정 맞춰 준비중"

서울, 11월 2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가 이달 초 한국 증시의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관련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경제 위상과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당위성은 충분하다면서 MSCI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대해 기재부 한 관계자는 "내년 6월 MSCI 측 발표 일정에 맞춰서 내부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MSCI 선진국지수 정식 검토를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됐는데, 내년 이 명단에 포함되는 게 우선 과제다. 결국 오늘 홍 부총리 발언은 내년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속도감 있게 관련 작업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달 초 홍 부총리 MSCI 재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와 달리 이날 코스피 반응은 제한적이다.

▲ API 도입 긍정적일까

MSCI는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 장애물로 역외 외환시장 부재에 따른 투자자들의 환전 불편을 꼽아 왔다.

원화 환전 문제를 두고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가 관건이지만, 최종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의 직접적인 현물 인수도 요구가 아니라면 정부는 현재 시장 여건에서도 픽싱이나 환 헤지 불편이 크지 않다는 점은 어필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원화 거래 접근성과 편의성을 먼저 살펴본 후에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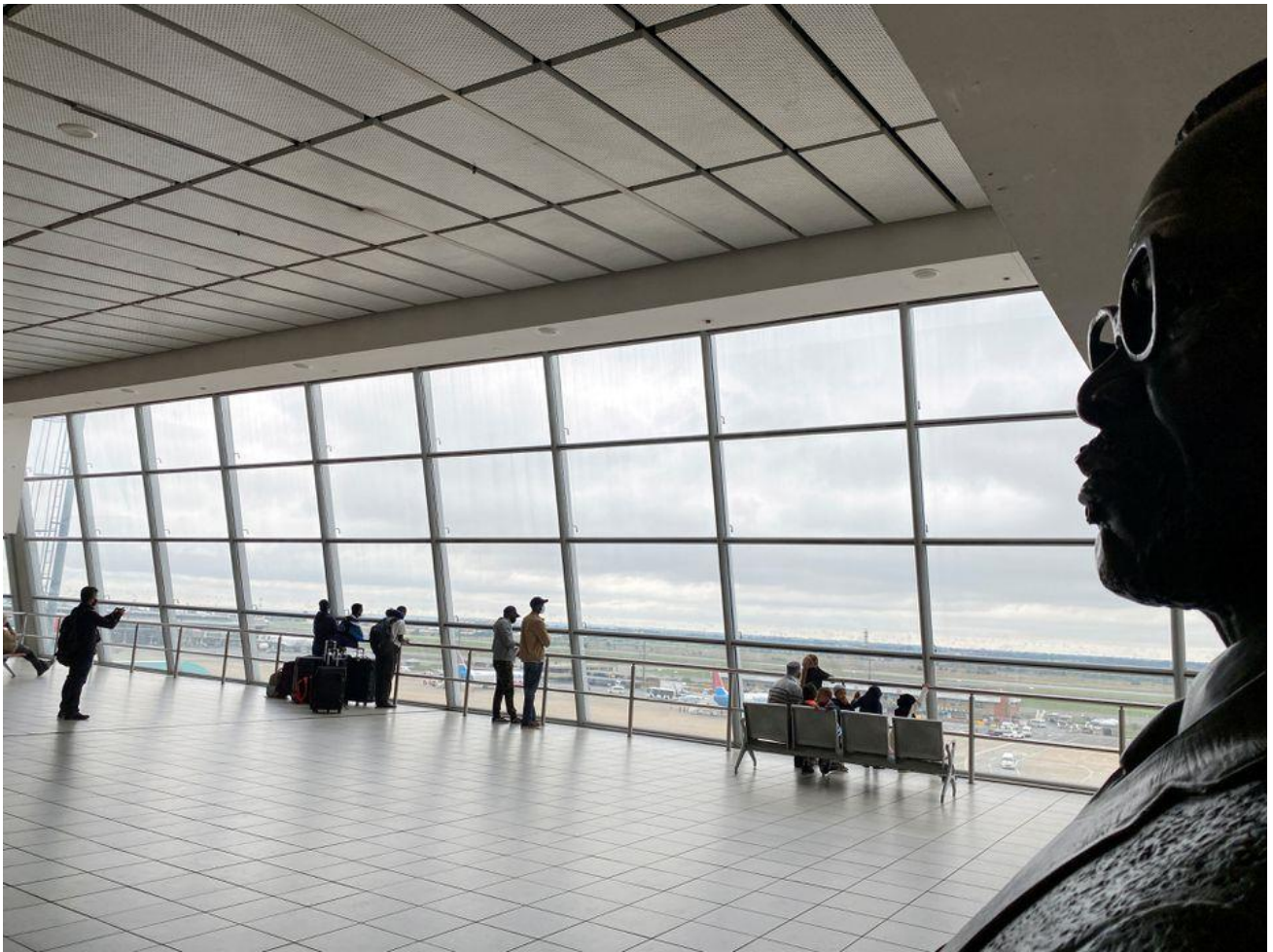
한편 올해부터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원화 전자거래 도입을 위해 개별적으로 준비 중이다.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 차원에서는 행동규범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이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의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외국환 은행이 은행 간 중개시스템과 대고객 거래시스템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해 호가 제공, 거래 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환 거래로의 확장 및 다양한 거래자의 참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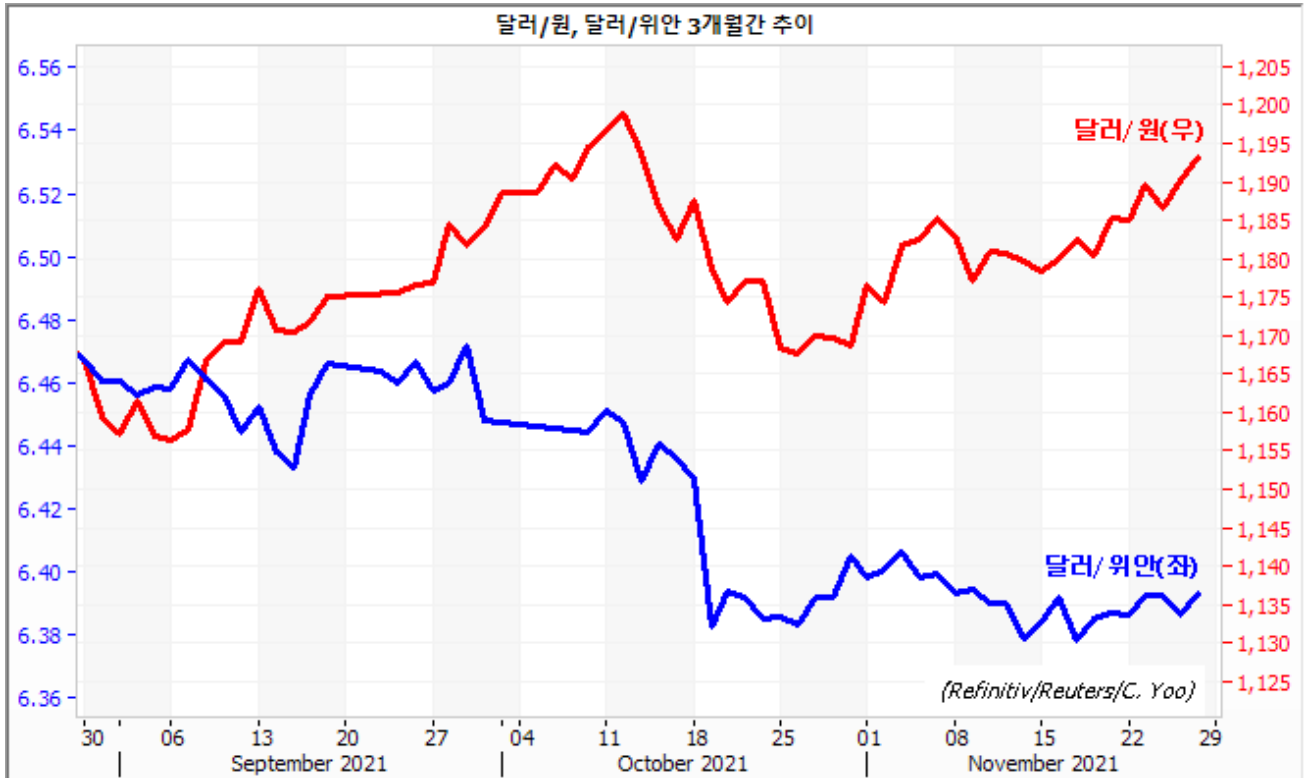
물론 API 방식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은 MSCI 측이 요구하는 역외 원화 시장 개설 요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글로벌 시장 추세와 보폭 맞추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다. 하지만 역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 시장 참가자는 "원화의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원화 거래 접근성 측면에서 잠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원화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역외 세력들의 양방향 거래가 가능해지고 만약 역내 거래시간까지 확대된다면 이에 따른 효과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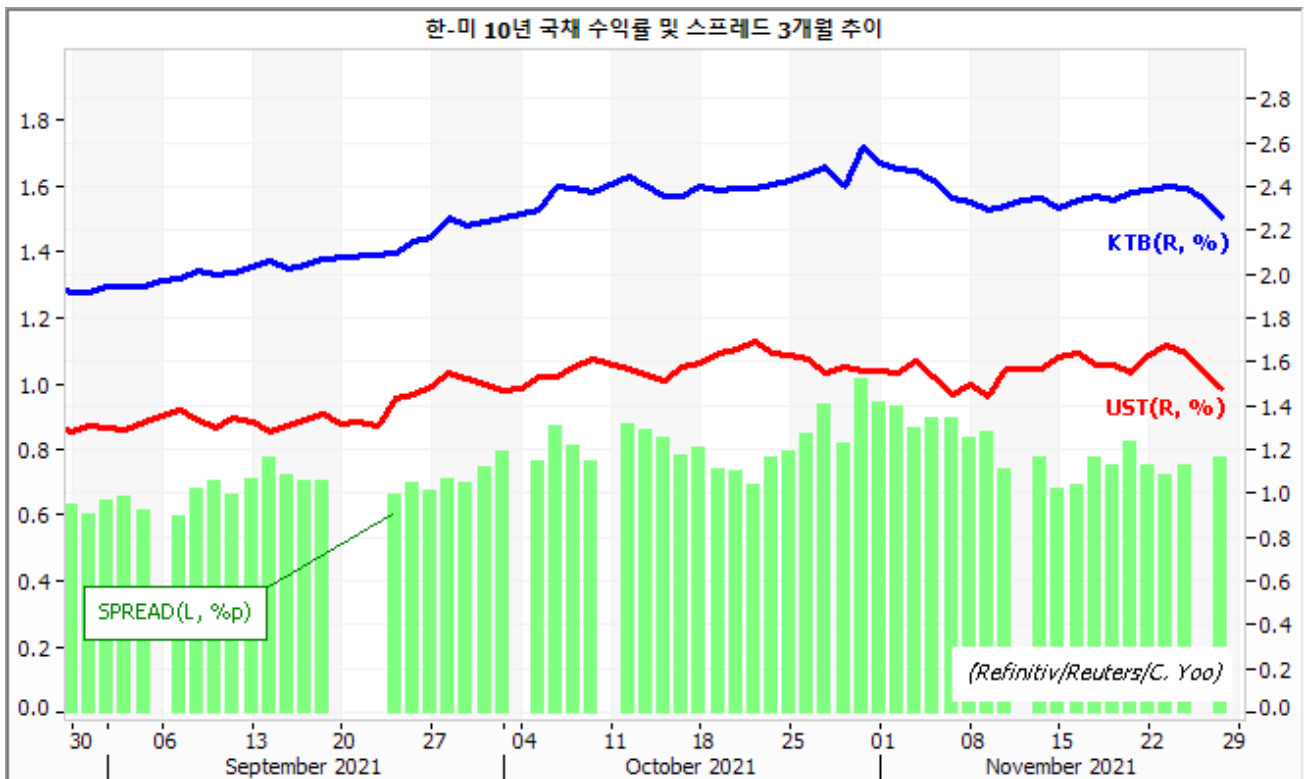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Frisky FX

FX volatility expectations are at an 8-month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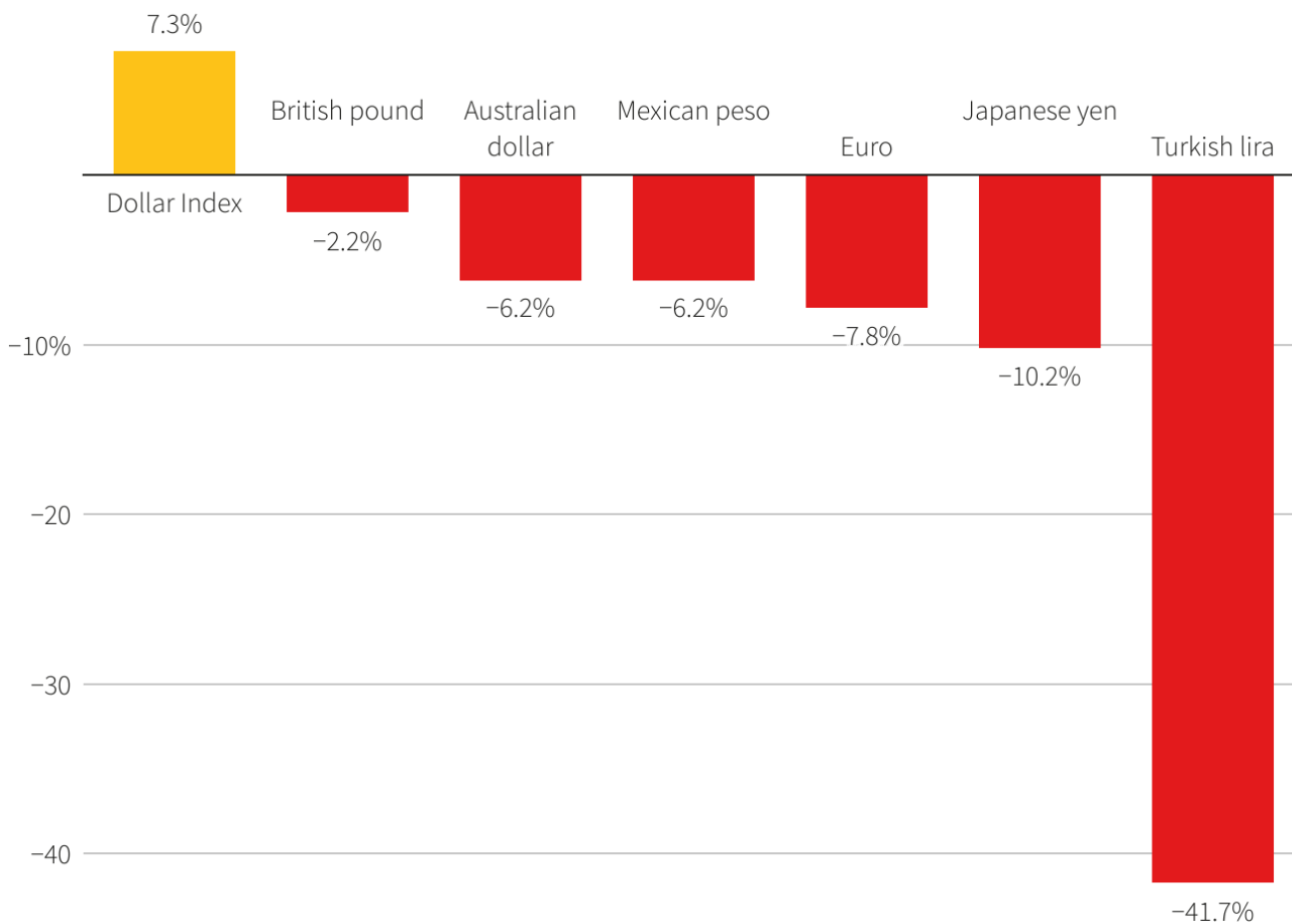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Reuters graphic/Saqib Ahmed 11/23/2021 @Saqibreport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King dollar

The dollar has advanced against a broad range of currencies this year



Note: YTD performance
Source: Refinitiv Eiko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